읽고 쓰고 작가 만나고…섬진강 글잔치

광주전남작가회의 '섬진강문학학교'

조태일문학관 방문·인문학 강좌

김희준 시인과 진로 이야기도

지난해 열린 '섬진강여름문학학교' 진행 모습.

"올 여름엔 시인, 작가가 되자"

유난히 무더운 올 여름 더위를 피해 산과 강과 바다로 떠나는 이들이 많다. 한편으로 책을 읽으며 힐링을 하는 독자들도 적지 않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자연과 벗하며 예술적 감흥과 문학적 소질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박관서)는 곡성군과 공동 주관으로 '섬진강에 피우는 시·산문·꿈 한마당'을 주제로 섬진강여름문학학교를 개최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곡성 강빛마을 펜션에서 열린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한 섬진강문학학교는 청소년들과 작가들의 만남으로, 문학과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문학 특강과 인문학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문학적 사유를 넓히고 시와 산문을 써보는 기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답사, 글쓰기,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먼저, 10일 오후 2시30분에 곡성 조태일시문학관에 도착해 문학관 관람을 한다.

'국토'의 시인 조태일은 70~80년대 암울한 시대를 온몸으로 맞선 저항시인이다. 문학관에는 시인의 출생과 성장의 역사가 고스란히 깃든 2000여 점의 유품이 비치돼 있다. 시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집무실도 재현해 놓아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또한 우리나라 시 문단사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시인들의 연대표와 활동상도 전시돼 있다. 문학관 관람 이후에는 문학학교가 열리는 강빛마을 펜션으로 이동한다. 이어 접수와 등록, 담임소개, 숙소배정 등 기초적인 일정이 시작된다. 입교식에서는 유근기 곡성군수와 학교장인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의 인사말이 있을 예정이다.

오후 5시부터는 문학강좌가 진행된다.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인 김희준 시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문학 강연을 한다. '시와 진로'를 주제로 시를 통해 진로의 방향에 대해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요들송 공연도 펼쳐진다. 곡성 도깨비마을 촌장이며 광주일보 신춘문예(2001) 출신 동화작가인 김성범씨가 요들송을 들려준다.

'청소년 심리'를 주제로 한 인문학 강좌에는 정의석 청소년 심리상담가가 나선다. 지역사회심리건강지원그룹 모두 대표인 정의석 상담가는 강연에서 청소년기의 심리 특징과 자신의 심리를 파악하는 법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레크레이션과 참가학생들의 장기자랑도 이어진다. 학생들 참여 위주로 펼쳐지는 프로그램에서는 조별로 노래와 시낭송, 연극 등 다채로운 재능을 선보인다.

11일 2일차에는 글쓰기와 토론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좋은 글 쓰는 법에 대한 간단한 강의와 함께 직접 글을 써 보는 시간을 갖는다. 우수한 작품을 대상으로 대상 3명(초·중·고 각 1명), 우수상 3명(초·중·고 각 1명), 장려상 12명(초·중·고)을 시상한다.

이후에는 작품을 읽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문학 장르와 이유, 그리고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 나눌 예정이다.

8일까지 접수. 문의 062-523-783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똑똑, 광주 창작뮤지컬 입장합니다"

뮤지컬 '노크, 똑똑' 10~11일 리딩 공연

'창작그룹 MOIZ'

"광주에서 만들고 광주에서 올립니다."

창작공연이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지역의 현실에 굴하지 않고 광주에서, 광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하고자 뭉친 팀이 있다. 바로 '창작그룹MOIZ'.

'창작그룹MOIZ'(대표 도민주)가 새로운 뮤지컬 '노크, 똑똑' 리딩공연을 오는 10일과 11일 오후7시 씨디아트홀(광주 북구 서암대로 179 B1)에서 펼친다. 리딩공연은 창작뮤지컬이 정식공연으로 탄생되기 전 관객과 처음 만나는 형태의 공연을 말한다. 배우들이 대본과 악보를 들고 무대에 올라 최소한의 무대 배경, 조명 등과 함께 대본리딩을 하는 공연을 뜻한다.

지난해부터 준비한 콘텐츠는 창작 뮤지컬 '노크, 똑똑'을 비롯 연극 '식탁공론gif', 뮤지컬 'no named' 등 총 세편이다. 이중 뮤지컬 '노크, 똑똑'를 가장 먼저 무대에 올린다.

공연을 위해 창작그룹MOIZ는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함께하는 '2018문화예술펀딩프로젝트 만세만세 만(萬)만(滿)계(이하 만만계)'에 참여해 모금활동을 진행했다. 온라인 모금함을 통해 목표했던 100여만원을 달성, 여기에 매칭지원금 100만원을 더해 총 200만원 사업비로 '노크, 똑똑'의 리딩공연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공연 관람은 무료.

한편 만만계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발된 14개 문화예술프로젝트를 네이버 해피빈과 다음스토리펀딩을 통해 모금 진행 중이다. 기부 참여방법은 해피빈 개별 모금함(http://happylog.naver.com/gjcfgive.do) 또는 네이버에서 광주문화재단을 검색하면 진행 중인 모금함이 뜬다. 문의 010-6801-8558. /박성천 기자 skypark@

황영성의 '60년 화업' 이야기

비엔날레, 내일 스튜디오 탐방

재)광주비엔날레가 지역 밀착형 정기 프로그램 '월례회' 일환인 GB작가 스튜디오 탐방 열 세번째로 황영성〈사진〉 화백의 작업실을 8일 오후 2시 방문한다.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는 황 화백과 조인호 광주비엔날레 전문위원의 대담 및 참석자들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다. 황 화백의 60년 화업을 공유하는 이날 탐방에서는 미술 입문기인 광주사범학교와 조선대학교 미술학과 시절, 70년대부터 90년대 이후까지 변화를 거듭해온 예술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마을과 소와 가족을 주 소재로 작업해온 황 화백은 대상을 단순화하고 기호화해서 다양한 재료와 표현 형식들로 화폭을 구성하고 공간을 확장해 나갔다. '회색시대', '녹색시대', '모노크롬 시대'를 거친 황 화백은 1990년대 이후에서는 모더니즘적인 성향을 보이며 다채로워진 색채와 함께 특유의 추상화되고 기호화된 화법을 구사한다.

문의 062-608-423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비움박물관서 찾는 '민속 보물'

23~25일 '보리타작' 체험활동

다양한 민속품을 전시중인 비움박물관이 박물관 소장품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계절에 따라 부르는 우리 소리'는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교육프로그램에 선정돼 진행하는 기획으로 전래동요와 민요를 통해 계절에 따른 우리 조상들의 생활모습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계절에 따른 전통 민요와 동요들을 불러보고, '보리타작' 노래에 나오는 수확과 관련한 조상들의 생활모습을 알아본다. 또한 노래에 등장하는 도리깨를 관찰하고 모형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23~24일(오전 10시~낮 12시, 오후 2시~4시), 25일(오후2시~4시) 3일간 진행된다.

'2018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찾아라! 민속보물'은 비움박물관 소장품들을 보물찾기처럼 찾아보고, 전시 관람 후 느낀 점을 부채에 그려보거나 시로 써보는 창작 체험활동이다. 11월까지 매주 화~토요일 상설운영하며 간단한 간식도 제공한다.

교육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나 기관, 개인은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으로 무료로 제공한다. 문의 062-222-666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지하·신경림…예술 원로 생애 기록으로 남긴다

문예위, 11명 구술채록사업

신경림

박정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올해 시인 김지하와 신경림을 비롯한 원로예술인 11명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지하 시인은 1969년 시 '황톳길'로 등단 후 유신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의 상징으로 주목받았다.

신경림은 시 '농무'를 민중의 애환을 한국적인 정서로 묘사한 대표적인 민중시인이다.

여성 연극과 모노드라마의 신드롬을 일으킨 배우 박정자, 한국 연극을 세계무대에 알리는 데 기여한 연극평론가 양혜숙, 독자적인 한국적 화성이론을 추구한 재야작곡가 김국진, 우리나라 1세대 타악기 연주의 거장으로 불리는 음악인 박동욱도 포함됐다.

제작극회를 거쳐 종로테레비, 동아방송에서 다수 작품을 기획·연출한 PD 안평선, 독창적 사실주의 세계를 구축한 화가 김형근, '모내기'로 유명한 민중미술작가 신학철, 미학·미술비평가 김윤수, 소설가 정연희도 구술자로 나선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독재와 민주화, 산업화와 근대화 등 굴곡 많은 근현대사를 경험한 구술자들의 생애에 대한 회고와 성찰은 한국예술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은 2003년 시작해 총 305명의 원로예술인에 대한 구술기록을 축적했다. 생애사 구술채록은 각 분야 전문연구자가 구술자와의 예비면담을 거쳐 총 5회, 10시간 분량으로 진행되며 전 분량이 영상으로 촬영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